

『明治天皇御製謹譯』의 번역사적 위치 연구*

- 춘원(春園) 이광수의 번역 방식을 중심으로 -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Contents

- I. 서론
- II.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일본의 운문작품
- III. 일본의 운문작품 번역에 보이는 번역 방식
- IV. 『明治天皇御製謹譯』의 번역사적 위치
- V. 맺음말

I. 서론

번역의 관점에서 볼 때 일제강점기는 흥미로운 시기다. 일본문학작품의 조선어역과 더불어 조선문학작품의 일본어역¹⁾이 비교적 활발하게 시도되었기 때문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가 수행하는 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연구임(NRF-413-2011-2-A00001)

** 경희사이버대학교(일본학과) 부교수 일본문화학 전공

1) 이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노자키 미즈히코(2006)『일본번역문화에 있어서의 한국문학』『번역과 인문학-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설립 60주년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신혜(2007)『일제시대 일본인의 고서간행과 호소이 하지메의 활동-고소설 분야를 중심으로-』『은지논총』제16집, 은지학회

최해주(2009)『한말 일제하 재조일본인의 조선 고서 간행사업』『대동문화연구』제66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함동주(2009)『1900년대 초 일본의 조선 관련 서적 출판과 ‘식민지 조선상』』『근현대 일본의 한국 인식』, 동북아역사재단

박상현(2009)『제국일본과 번역-호소이 하지메의 조선 고소설 번역을 중심으로-』『일어일본학연구』제71집, 한국어어일본학회

_____ (2011)『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일본어 번역본『장화홍련전(薔花紅蓮伝)』연구』『일본문화연구』제37집, 동아시아일본학회

이다. 이 시기의 번역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일본 문학작품의 조선어역보다 조선문학작품의 일본어역이 더 많았다. 보통은 지배 문화가 번역을 통해 피지배문화에 소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말이다.²⁾

반복해서 말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일본문학작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많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번역의 필요성을 제국일본도 식민지 조선도 그리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³⁾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번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시기적인 특징도 있었다. 즉 일제강점기를 10년 단위로 파악할 때 전(全)시기에 걸쳐 일본문학작품의 조선어역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1920년대와 1940년대에 그것이 집중되었다. 한편 장르적으로 볼 때도 중요한 특색이 발견된다. 소설과 같은 산문작품보다 의외로 근대시나 와카(和歌)와 같은 운문작품이 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살펴볼 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첫째, 왜 다른 시기도 아닌 1920년대와 1940년대에 일본문학작품의 조선어역이 집중되었을까? 둘째, 1920년대와 1940년대에 번역된 일본문학작품은 같은 의도로 번역되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까? 셋째, 왜 산문작품보다 운문작품이 주로 조선어로 번역되었을까? 넷째, 1920년대에는 주로 일본의 근대시가, 1940년대에는 와카가 번역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섯째, 운문작품은 대체로 어떻게 조선어로 번역되었을까?

여기서는 위와 같은 여러 질의 가운데서 우선 마지막 질문에 답하면서, 최종

이들 선행연구 가운데 노자키 미즈히코는 일본번역문화에 있어서의 한국문학을 살펴보았는데, 주로는 광복 후에 이루어진 한국문학작품의 일본어역을 다루었다. 서신혜와 박상현은 재조(在朝) 일본인인 호소이 하지메(細井肇)의 조선 고소설 번역에 관해 논했고, 최혜주와 함동주는 조선에서 출간된 조선 고서 간행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2) 쓰지 유미 저, 이희재 역(2008)『번역사 오디세이』플레마, p.16

참고로 이런 현상은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예컨대 영어로 쓰인 선진국의 문화가 번역을 통해 주로 비영어권의 그렇지 않은 지역에 소개된다는 점에서 잘 확인할 수 있고, 또한 일본과 한국 간의 번역양상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예를 들어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이자 소설가였던 김동인은 일본문학작품을 조선어로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히 말했다. 그냥 일본어로 읽으면 되기 때문이란다. 어쩌면 이런 생각은 그만의 것이 아니라 당시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었던 식민지 조선 지식인의 보편적인 현상이었을 것이다.

적으로 본고의 논제에 대답하고자 한다. 즉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춘원(春園) 이광수는 1941년 5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걸쳐 『신시대(新時代)』⁴⁾에 명치천황(明治天皇)의 와카인 『明治天皇御製』를 조선어로 옮겼다. 『明治天皇御製謹譯』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것을 검토하여 『明治天皇御製謹譯』에 보이는 번역 방식을 고찰한 후, 일본운문작품의 조선어역에 있어서 그것이 갖고 있는 번역사적 위치를 살펴보는 데 있다.

II.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일본의 운문작품⁵⁾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일본의 운문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체계적인 논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다. 다만 부분적인 고찰이 있었을 뿐이다. 예를 들어 구인모는 주요한과 황석우가 일본 상징주의 시(詩)를 조선어로 번역하여 식민지 조선에 소개한 것을 자세하게 언급했다.⁶⁾ 또한 서은주⁷⁾와 박광현⁸⁾ 그리고 박상현⁹⁾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가집(詩歌集)인 『만

4) 신시대사가 1941년 1월에 태평양전쟁이라는 시국적 배경 하에 창간한 것이다. 여기에는 전쟁 및 전쟁협력에 관한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다.

5) 한편 일제강점기에 조선어로 옮겨진 일본의 산문작품으로는 1912년에 조중환이 도쿠토미로키(徳富蘆花)의 소설 『不如帰』(1898)를 번역한 『불여귀』가 있다. 또한 1920년에는 김동인이 아리시마 타케오(有島武郎)의 『死と其前後』를 『죽음과 그前後』로 옮겨 『서광(曙光)』제7호에 게재했고, 1921년에는 박석운이 아리시마의(有島)의 『小さき者へ』를 『어린것들에게』로 옮겨 『창조(創造)』제8호에 실었다. 그리고 1938년에는 니시무라 신타로(西村真太郎)가 히노 아시헤(火野葦平)의 『妻と兵隊』(1928)를 『보리와 兵丁』으로 번역했다. 이들 작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한다.

6) 구인모(2009) 『한국의 일본 상징주의 문학 번역과 그 수용-주요한과 황석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5집, 국제어문학회, pp.107-139.

7) 서은주는 『제도로서의 한국 근대문학과 탈식민성』이라는 책에서 서두수와 그의 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즉 식민지 문인들이 일본문학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고대 및 중세문학을 본격적으로 읽기란 어려운 일인 만큼, 경성제국대학이라는 제도적 교육을 통한 일본문학의 학습은 개인적 차원에서 문학적 지식이나 교양의 습득을 위해 동시대의 일본문학을 접했던 경우와는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

서은주(2008) 『제도로서의 한국 근대문학과 탈식민성』 소명출판, p.291.

8) 박광현은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이라는 논문에서 조선인으로서 최초로 경성제대에서 당시의 ‘국문학(国文学)’인 ‘일본문학’을 전공했던 서두수를 “조선문학과 ‘국문학’의 제도 사이를 오가며 자신의 학

엽집(万葉集)』이 조선어로 번역되어 식민지 조선에 이식되는 상황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것을 조선어로 옮겼던 서두수¹⁰⁾의 학문적 정체성에 대해 논했다. 그리고 임선묵¹¹⁾과 박상현¹²⁾은 제국일본의 내지(内地)에서 간행된 만엽(萬葉)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 가인(歌人)의 노래(歌) 100수(首)가 실려 있는『愛國百人一首』라는 와카집(和歌集)이 『선역애국백인일수(鮮訳愛國百人一首)』라는 타이틀 하에 조선어로 번역된 상황에 대해 논했다.

그럼 지금부터 일제강점기에 조선어로 번역된 일본의 운문작품의 전체상을 조망해보자.¹³⁾ 주요한은 ‘별꽃’이라는 필명으로 1919년 2월과 3월에 『日本近代

문적 동일성을 탐색했던 인물”이라고 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장소가 갖는 의미성 속에서 식민지민으로서 ‘국문학’=지배자의 국학을 한다는 학문적 주체와 대상의 불일치라는 모순의 구속으로부터 항시 자유롭지 못한 채 학문을 수행해야 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박광현(2009)『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 ‘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pp.367-368.

- 9) 박상현은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에서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은 다음과 같이 시기적으로 달랐고,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도 시기적으로 달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제1기인 1930년~1939년까지가 조선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과 더불어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면서도 주로 조선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보였던 시기였다면, 제2기인 1940년~1945년까지는 일본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시기였다. 그리고 제3기인 1945년~1949년까지는 한국문학전공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시기였고, 제4기인 1950년 이후부터 작고하기까지는 해외의 한국(문)학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시기였다.

박상현(2013)『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 『일본학연구』 제38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182-183.

- 10) 그는 전(前) 카이스트 총장이었던 서남표의 부친이다.

- 11) 임선묵은 『선역애국백인일수고-안서문학일반-』에서 『愛國百人一首』를 조선어로 옮겨 『선역애국백인일수』로 출간한 김억의 번역 활동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鮮訳 愛國百人一首』는 岸曙 金億 [熙權] 이 日政末인 1944년에 上梓한 翻譯詩歌集이다. (중략) 上梓된 시기로 보나, 그 무렵 岸曙의 文壇的 立場으로 보아 親日文學圈의 形成에 기여한 目錄의 하나임에 틀림없다.”

임선묵(1981)『선역애국백인일수고-안서문학일반-』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165.

- 12) 박상현은 『김억의『선역애국백인일수』연구』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 내지에서 출판된 『愛國百人一首』는 총 두 종류가 있었다고 말한다. 즉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인 1941년에 대일본웅변회강담사의 대중잡지인 『킹(キング)』의 의뢰로 가와다 준(河田順)이 개인적으로 편집한 것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일본문학보국회가 공적으로 편집한 것이 있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김억이 번역 대본으로 삼은 것은 후자였다고 지적한다.

박상현(2009)『김억의『선역애국백인일수』연구』 『통번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번역교육학회, pp.121-140.

- 13) 이 작업은 국어국문학계와 일어일문학계를 통틀어 처음으로 시도되는 작업일 것이다. 그런

詩抄』(1)와 『日本近代詩抄』(2)를 『창조』에 각각 발표한다. 우선 『日本近代詩抄』(1)에서는 시마자키 도손(島崎藤村)의 「오기쿠」·「네소메」(이상, 『若菜集』에서 발췌), 「고모로의넛城가에서」(『落梅集』에서 발췌)를 조선어로 옮겼다. 또한 쓰지이 반스이(土井晩翠)의 「丞相」(『天地有情』에서 발췌), 가와이 스이메(河井醉茗)의 「사쿠라소오」(『塔影』에서 발췌), 요코세 야유(横瀬夜雨)의 「오사이」(『二十八宿』에서 발췌), 히라키 하쿠세(平木白星)의 「어둠속에」(『日本国家』에서 발췌), 스스키다 큐킨(薄田泣菫)의 「샘」(『가는봄』¹⁴)에서 발췌)도 번역·소개했다.¹⁵ 한편 『日本近代詩抄』(2)에서는 간바라 아리아케(蒲原有明)의 「自来」(『獨絃哀歌』에서 발췌)와 「靈의해의 蝕」(『有明集』에서 발췌), 이와노 호메(岩野泡鳴)의 「말업스들」·「열쇠를달라」(이상, 『悲恋悲歌』에서 발췌)와 「달과고양이」(『어둠의 盃盤』¹⁶)에서 발췌), 미키 로후(三木露風)의 「四月」·「마음속」·「릉금나무미테」(이상, 『廢園』에서 발췌)와 「봄」(『환영의 田園』¹⁷)에서 발췌), 기타하라 하쿠슈(北原白秋)의 「邪宗門秘曲」·「미친거리」·「쏟을불다」·「하늘에셋발간」·「어릴적뎌」·「류리베논이」(이상, 『邪宗門』에서 발췌)와 「후지꽃」(『눈과 煙火』¹⁸)에서 발췌)을 조선어로 번역했다.¹⁹

황석우는 1920년 7월에 발간된 『폐허』창간호에서 미키 로후의 「解雪」, 간바라 아리아케의 「赤鳥」, 하나즈 고노스게(日夏耿之助)의 「忍黙」, 기타하라 하쿠슈의 「街童」, 산구 마코토(山宮允)의 「魂의憧憬의나라」, 야나기자와 겐(柳沢健)의 「歎息」, 사이조 야소(西條八十)의 「秋」, 하기와라 사쿠타로(萩原朔太郎)의 「天上縊死」, 이와노 호메의 「永劫의힘」과 같은 시를 번역·소개했다.²⁰

김억은 1924년 10월에 노구치 요네지로(野口米次郎)의 「女職工의 노래」²¹)를

의미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 단계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번역 작품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번역 작품을 소개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다.

14) 원문 그대로. 시집 『ゆく春』을 말함.

15) 별꽃(1919)『日本近代詩抄』(1)『창조』창간호, 창조사, pp.76-80.

16) 원문 그대로. 시집 『闇の盃盤』을 말함.

17) 원문 그대로. 시집 『幻の盃盤』을 말함.

18) 원문 그대로. 시집 『雪と花火』를 말함.

19) 별꽃(1919)『日本近代詩抄』(2)『창조』제2호, 창조사, pp.43-50.

20) 한국문화간행사 편(1982)『한국잡지총서』2 한국문화간행사, pp.86-95.

참고로 황석우는 맨 마지막에 ‘妄訳多罪’라고 쓰고 있다. 여기서 ‘妄訳’은 ‘그릇된 번역’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의 번역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어로 옮겨 『영대(靈臺)』에 실었고, 1927년 7월에는 시마자키 도손의 『복소리』(梭)를 번역하여 『중외일보(中外日報)』에 소개했다.²²⁾ 또한 그는 1943년 7월에서 8월에 걸쳐 『매일신보』에 『만엽집초역(万葉集鈔譯)』을 게재하여 『만엽집』을 소개했고, 1944년 8월에는 제국일본의 내지에서 출간된 『愛國百人一首』를 조선어로 번역한 『선역애국백인일수』를 식민지 조선에서 출판했다.²³⁾ 여기에는 충군애국(忠君愛國)의 와카 100수가 실려 있다.

이광수는 1941년 5월과 7월 그리고 9월에 걸쳐 『신시대』에 명치천황의 와카 가운데 총 18수를 골라 조선어로 옮겼다. 본고에서 주로 논하고자 하는 『明治天皇御製謹譯』이 그것이다.

서두수는 1942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일신보』에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 : 치졸한 이식』을 연재하여 『만엽집』에 실려 있는 와카 가운데 ‘병사의 노래(防人歌)’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하여 식민지 조선에 이식했다.

마지막으로 역자 미상이지만 1944년 8월에 『조광(朝光)』에는 미야자와 겐지(宮沢賢治)의 『雨二毛負ケズ』가 조선어로 번역·소개되었다.²⁴⁾

Ⅲ. 일본의 운문작품 번역에 보이는 번역 방식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로 옮겨진 일본의 운문작품은 과연 어떻게 번역되어 있을까? 다시 말하면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시되었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과 함께 일본어원문도 제공되었을까?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주요한은 1919년 2월과 3월에 걸쳐 『창조』에 『日本近代詩抄』(1)와 『日本近代詩抄』(2)를 연이어 게재하면서 일본의 상징주의 시를 조선어로 번역·소개했다. 『日本近代詩抄』(1)에는 시마자키 도손, 쓰지이 반스이, 가와이 스이메, 요코세 야유, 히라키 하쿠세, 스스키다 큐킨의 시(詩)가 실

21) 박경수 편(1987) 『안서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63.

22) 위의 책, p.463.

23) 이것은 1943년 7월 20일부터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것을 모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24) 역자 미상(1944) 『朝光』, 조광사, p.52.

려 있는데,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시마자키 도손의 『오기쿠』만 인용한다.

『오기쿠』

거른머리부드럽고기인
계집애의맘을뉘알리오

사나이입에서나는말을
생각지도말라참되다고

계집애의맘은엇다고만
전해오는것도우섭도다
(중략)²⁵⁾

또한 『日本近代詩抄』(2)에서는 간바라 아리아케, 이와노 호메, 미키 로후, 기 타하라 하쿠슈의 시가 게재되어 있다. 그 가운데 여기서는 간바라 아리아케의 『自来』만 예시한다.

『自来』

나무마른수풀 겨울날에
自来 한줄기
(올토다, 自来이여)
그열매 노픈가지스데 바람에말랸다

나무마른수풀 저편에서
마을의 處女는
(올토다, 처녀여)
순맑고 껍긋한그모양 아릿답도다

나무마른수풀 이편에는
바람에 불려서

25) 별꽃, 앞의 논문(『日本近代詩抄』1), p.76.

(올토다, 몹슨바람)

불리어 空中에 帛來의 緋질은씩는다

(중략)²⁶⁾

황석우는 1920년 7월에 출판된 『폐허』창간호에서 미키 로후, 간바라 아리아케, 히나즈 고노스게, 기타하라 하쿠슈, 산구 마코토, 야나기자와 겐, 사이쵸 야소, 하기와라 사쿠타로, 이와노 호메의 시를 번역·소개했다. 그 가운데 여기서는 미키 로후의 「解雪」만 소개한다.

「解雪」

시내골작이는가슴버리이러케말하도다

(洪水의물

썩죽썩죽한눈(雪)

불의살(征矢)의힘

一時에오도다)

보라, 시내골작이의봄오는곳

그胸廓은녹도다

그心臟은

肋骨을늘너오르키면서 부르짓도다

(노래할거나나는

榮華잇는者의지내는데

醉할거나나는

피로움의感謝로써)

이러케시내골작이는부르짓도다

시내골작이의입은어린菊花의

그우에碧紺의하늘걸니도다 감벽

얼마나곱고맑은

「휘陽」쓴어머니의눈으로써

(중략)²⁷⁾

26) 별꽃, 앞의 논문(『日本近代詩抄』2), pp.43-44.

김억은 1924년 10월에 출간된 『영대』에서는 노구치 요네지로의 「女職工의 노래」를, 1927년 7월에 나온 『중외일보』에서는 시마자키 도손의 「복소리」(梭)를 각각 번역·소개했다. 그 전문(全文)의 일부를 소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女職工의 노래」

비오는날이면

비방울은

찬동찬동²⁸⁾,

귀엽은건 아모것도업스나

公休日이 귀엽어.

(중략)²⁹⁾

「복소리」(梭)

복소리를 들은사람은 只今어대라

한낫맘을 날에라씨에 함께꽃고서

까내나니 눈물어리운 이무명이라

깨어진窓에 고요히 몸을기대고서

(중략)³⁰⁾

요컨대 위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주요한, 황석우, 김억은 일본 근대시를 조선어로 옮길 때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공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식민지 조선에 번역·소개된 일본의 운문작품이 반드시 이와 같은 번역 방식으로만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으로 번역되어 있었을까?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번역자들이다. 서두수는 1942년 11월에 『만엽집』에 실려 있는 와카 가운데 ‘병사의 노래’를 뽑아 조선어로 번역하여 『매일신보』에 연재했는데, 그때 그는 와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다(인용문에서 강조 표시는 필자).

27) 한국문화간행회 편, 앞의 책, pp.86-87.

28) 원문에서는 두 번째의 ‘찬동’이 ‘ODORIJI(踊り字)’로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찬동’으로 표기했음. 이하 같음.

29) 박경수 편, 앞의 책, p.463.

30) 위의 책, p.463.

이하 같음).

長きや 命被り 明日ゆりや 葦が共寝む 妹無しにして(四三二一)

惶恐하고야 큰부르밧자와 세는날부턴 무속무처잠드니 지어밀쳐나고서

我が妻は いたく恋ひらし 飲む水に 影さへ見えて よに忘れず(四三二二)

내지어미야 알뜰히그린양타 마시련샘에 그림자어른대여 니출곳모를레라

時々の 花は咲けども 何すれぞ 母とふ花の 咲き出来ずけむ(四三三三)

이철저철 꽃이란꽃다피것만 어찌타관데 어미란꽃은 피여올줄모른고

김억도 194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만엽집』을 발췌·번역한 『만엽집초역』을 『매일신보』에 게재했고, 또한 1944년 8월에는 제국일본의 내지에서 충군애국의 의식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발간한 『愛國百人一首』를 조선어도 옮긴 『선역애국백인일수』를 식민지 조선에서 출판했다. 여기에서도 아래와 같이 각각 번역되어 있다.

『만엽집초역』

安位女郎

今更に何をか思はむうちなびき こゝろけ君によりにしものを³¹⁾

(今更 何乎可將念 打靡 情者君爾 緣爾之物乎)

무엇을 새삼스래 이생각 바꾸오리

이마음 그저님만을 의지의지시나니

『선역애국백인일수』

かきのもと ひとまる
柿本人麻呂

大君は神にしませば天雲の 雷の上に處せるかも。³²⁾

우리님 높고크사 現神이 그오시매

구름속 우레山우에 게오실宮 집시네.

31) 『만엽집』권4·505

32) 『만엽집』권2·235

역자 미상인 한 번역자도 1944년 8월에 미야자와 겐지의 근대시(近代詩)인 「雨ニモ負ケズ」를 아래와 같이 번역하여 『조광』에 실고 있다.

雨 ^{アメ} ニモマケズ	비한테도 안지고
風ニモマケズ	바람에도 안지고
雪ニモ夏ノ暑サニモマケヌ	눈한테도 여름더위에도 안지는
丈夫ナカラダヲモチ	튼튼한 몸을 가지고
欲ハナク	욕심은 없고
決 ^{イカ} シテ瞋 ^{イカ} ラズ	결코 눈부릅뜨잡고
イツモシヅカニワラツデキル	언제나 조용히 웃고있다.
一日ニ玄米ニ合三勺ト	하루에 玄米 二合三勺과
味噌 ^{ミソ} ト少 ^コ シノ野菜 ^{ヤサイ} ヲタベ	된장과 얼마안된 채소를 먹고
(中略)	(중략) ³³⁾

요컨대 방금 살펴본 서두수와 김억 그리고 역자 미상이 조선어로 옮긴 번역문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어원문’도 같이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번역 방식이 ‘일본어원문-조선어역’이라는 대역(對譯)이었다.

지금까지 고찰해보았듯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일본운문작품의 번역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시하는 방식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일본어원문과 조선어역을 함께 제공하는 대역 방식이 있었다. 특히 전자의 번역 방식은 주로 1910년대 후반에서 1920년대까지, 한편 후자는 1940년대에 들어서 시도되었다.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의 운문작품을 번역할 때, 번역문에 조선어역과 함께 일본어원문도 제공하는 대역 방식은 1940년에 들어 선택된 번역 방식이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번역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그가 바로 다름 아닌 춘원 이광수였다.

33) 역자 미상, 앞의 논문, p.52.

IV. 「明治天皇御製謹譯」의 번역사적 위치

명치천황은 1867년부터 1912년까지 재위(在位)했었는데, 그는 그 기간 중에 약 10만수에 달하는 와카를 창작했다고 한다.³⁴⁾ 이 가운데 이광수는 우선 6수를 골라 조선어로 번역하여 「いくさ船」³⁵⁾라는 제목³⁶⁾ 하에 『신시대』에 발표했다. 1941년 5월의 일이다. 또한 그는 같은 잡지에 「明治天皇御製謹譯」이라는 타이틀 하에 1941년 7월과 9월에 각각 17수와 18수의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겼다.³⁷⁾ 결국 그는 총 41수의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한 셈이다.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에 대한 선행연구는 의외로 얼마 되지 않는데, 우선 임종국은 『친일문학론』에서

일제 말엽의 번역문학-對米戰의 결과인 반미사상으로 영미문학의 번역이 자취를 감추었고 일본문학의 조선어역과 조선문학의 일어역이 성행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국어보급운동과 내선문화 교류에 직결되는 문제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작품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萬葉集』이나 『愛國百人一首』, 「天皇陛下御歌」³⁸⁾ 같은 종류의 번역은 직접 일본정신을 선전하는 역할도 적지 않았다. 친일문학의 종범적(從犯的) 위치를 점하는 것³⁹⁾

이라고 지적한다.

이경훈은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에서 이광수가 조선어로 번역한 명치천황의 와카 가운데 특히 「いくさ船」를 가리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34) 明治会(1941)『明治天皇御集』新潮社, pp.1-258.

『明治天皇御集』에는 명치천황이 창작한 10만수의 와카 가운데 1687수가 엄선되어 있다.

35) 전선(戰船) 혹은 병선(兵船)이라는 의미.

36) 그 아래 소제목으로 ‘明治天皇御製’를, 다시 그 아래에 ‘海軍에 関하여 지으신 것 몇 首’를 두었다. 그리고 번역을 마친 후에는 ‘謹訳 香山光郎’라고 적고 있다. 참고로 ‘香山光郎’는 춘원 이광수의 창씨개명이다.

37) 번역을 마친 후에 ‘謹訳 香山光郎’, ‘香山光郎 謹訳’이라고 각각 표기하고 있다.

38)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訳」을 가리킴.

39) 임종국(1983)『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초판 1966), pp.445-446.

이는 일본의 “明治天皇”이 지은 와카(和歌, 원문 그대로 인용자주)를 이광수가 번역한 것으로, 천황에 대한 신하로서의 충성의 포즈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또 봉건적 군주와 근대적 시민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일반적인 시민혁명(중략) 등의 문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주체적인 역사적 체험의 결여(중략)가 초래한 전근대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해 이는 **일본의 천황에 대한 친일적 충성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주리는 역사적 형식에 대한 준원의 태도문제를 보인다.**⁴⁰⁾

최현식은 『이광수와 ‘국민시’』에서

그에게 와카의 제작 및 번역은 새로운 국민국가/민족의 열망, 그러니까 (조선인의, 인용자주)일본 제국으로의 신민화·국민화를 실현하는 정신의 개조를 의미했다.⁴¹⁾

고 지적한다.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임종국 이하 최현식과 같은 선행연구자는 이광수가 『明治天皇御製謹譯』을 번역한 의도와 더불어 『明治天皇御製謹譯』의 작품 분석을 주로 논하였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즉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40) 이경훈 편역(1995)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p.44.

또한 그는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에서는 『明治天皇御製謹譯』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와카를 언급하면서, “천황에 대한 익찬자(翼贊者) 또는 전쟁에 나간 신하로서의 충성심”을 나타내기 위해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번역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1) 夢さめてまづこそ思へ軍人むかひしかたのたよりいかにと

꿈이 깨어서, 맨처음 생각기는, 우리군사들, 나아가는 곳에서, 오는기별 어떤가

(2) おのが身にいたでおへるもしらずしてすゝみも行くかわが軍びと

제 몸이 맞아 중한 상처 생김도 모르고서리, 앞으로앞으로만, 나아가는 내군사

(3) 戦のにはのおとづれいかにぞとねやにも入らずまちにこそさて

전장으로서, 무슨 기별 오나고, 밤이 깊도록, 자리에 들지않고 고대고대하여라

(4) 石だゝみかたきとりでも軍人みをすてゝこそうち砕きけれ

돌로 쌓은, 굳고굳은 城壘도, 우리군사의, 몸버려 부딪쳐서, 깨뜨려내었어라

(5) 久しくもいくさのにはにたつひとは家なる親をさぞ思ふらむ

오랜세월을, 전장에서 싸호는 우리 군사들, 고향에둔 아버지, 생각간절할것을

(6) はからずも夜をふかしけりくにのため命をすてし人をかぞへて

어느사이에, 한밤을 새웠어라, 나라위하야, 목숨바친 사람의, 수를 세이 노라고

이경훈(1998)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p.194.

41) 최현식(2008) 『이광수와 ‘국민시’』 『상허학보』, 상허학회, p.324.

와카를 『明治天皇御製謹譯』이라고 하여 조선어로 번역한 이유는 식민지 조선에 ‘국어(國語)’ 곧 ‘일본어(日本語)’를 보급하고, 일본정신을 선전하는 데 있었다. 그리고 천황에 대한 신민(臣民)으로서의 충성심을 표현하고, 식민지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를 실현하는 데 있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런데 『明治天皇御製謹譯』의 번역사적 위치를 논하고자 하는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明治天皇御製謹譯』으로 하여 조선어로 옮길 때, 어떻게 번역했느냐 곧 번역 방식이 어떠한지이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明治天皇御製謹譯』가운데 몇 수를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いさ船』(1941년 5월)에서 일부 발췌 인용

(1)⁴²⁾ 戦にかちてかへりしいくさ船けへふもかゝれりしながはの沖

謹譯. 싸움싸호아 이기고 돌아오는 싸호는배들 오늘도 들어오네 시나가와 앞바다

(2) すゝめてふ旗につれつゝいさ船かろくも動く浪の上かな

謹譯. 나아가라는 旗발의 군호 따라 싸호는배들 가벼이도 달리는 바다의 물결이어

(3) あたの船うちしりぞけていくさびと大海原の月や見るらむ

謹譯. 원수의 배를 쳐물려치고 나서 사할아버들 가없는 난바다의 달바라고 있으리

(4) なみ遠くてらすともしびかゝげつゝ仇まもるらむわがいくさぶね

謹譯. 멀리 물결을 불들어 비취면서 (기나긴밤에) 敵兵을 지키리라 우리 싸움하는배

(5) 港江に万代よばふ声すなりいさををつみし船やいりくる

謹譯. 浦口 머리에 萬歲萬歲 부르는 소리 들리네 勝戰하야 功세운 배들어오나브다

『明治天皇御製謹譯』(1941년 7월) 에서 일부 발췌 인용

義

(1) 身にあまるおも荷なりとも国の為人のためにはいとほざらなむ

내힘에 겨운 무거운 짐이라도 나라 위하여 남을 위하여서는 싫여하지아니하리라

(2) おのが身はかへりみずして人のため尽すぞひとの務なりける

제몸을랑은 돌아보지않고서 남을 위하여 힘다함이 사람의 구실인줄 알아라

42) 괄호 번호는 편의적으로 인용자가 붙인 것임. 이하 같음.

をりにふれて

- (3) ^{あめ}天をうらみ人をとがむることもあらじわがあやまちを思ひかへさば

하늘 원망코 남의 탓을 하올줄 바이없으니 이내 몸의 허물을 돌려생각하오면
述懷

- (4) ひろき世にたつべき人は数ならぬことに心をくだかざらなむ

넓은세상에 나설만한 사람은 하잘것없는 일일래어 마음을 괴롭히지않으리
をりにふれて

- (5) 早苗とるしづが菅笠いにしへの手ぶりおぼえてなつかしきかな

논에 모내는 農夫의 도롱삿갓 옛날모양을 보는듯한저이고, 그리도 情다워라

『明治天皇御製謹譯』(1941년 9월)에서 일부 발췌 인용

正述心緒

- (1) よもの海みなはらからと思ふ世になど波風のたちさわぐらむ

천하백성이 모다 동포형제로 살세상이 어찌다 바람물결 이리로 설레는고
をりにふれて

- (2) 久方のあめにのぼれるこゝちしていすゞの宮にまゐるけふかな

높고 거룩한 하늘에 오르옵는 마음을 가지고 이스즈의 神宮에 뵈옵는 오늘이어
神祇

- (3) 神壇に朝まゐりしていのるかな国と民とのやすからむ世を

검님되신데, 아침에 절하삼고, 비옵는 말씀, 나라와 백성들이, 태평하올 세상을
思

- (4) 国民のうへやすかれとおもふのみわが世にたえぬ思なりけり

우리 백성이, 평안하여지라는 오직 한 생각, 평생에 끄넘없는 나의 생각이랸다
折にふれて(明治三十七年日露戦争中)

- (5) 夢さめてまづこそ思へ軍人むかひしかたのたよりいかにと

꿈이깨어서, 맨처음 생각기는, 우리군사들, 나아가는 곳에서, 오는기별 어떤가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번역할 때,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시하지 않고 일본어원문도 같이 제공하는 번역 방식, 곧 ‘대역(對譯)’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역을 할 때, 그는 일본어원문을 먼저 배치하고 조선어역을 그 다음에 두었다.⁴³⁾

최근에 『明治天皇御製謹譯』을 상세히 논한 박상현은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연구」에서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그가 번역문에 조선어역과 함께 일본어원문도 제시하는 번역 방식 곧 대역을 선택한 필연성과 함께, 와카의 리듬인 5음(音)·7음·5음·7음·7음을 준수하면서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긴 필연성에 대해서도 논증했다. 즉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대역 방식을 선택한 것은, 그가 이 방식이 당시 식민지 조선에 요구되었던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번역문에서 조선어역이 담당)와 일본어 보급(번역문에서 일본어원문이 담당)에 적합한 번역 방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길 때 조선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와카의 리듬인 5·7·5·7·7을 준수하면서 조선어역을 한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지적한다. 거기에는 와카 창작⁴⁴⁾ 등을 통해 와카의 리듬이 이광수에게 내면화되어 있었던 점, 명치천황이 손수 읊은 와카인 『明治天皇御製』라는 ‘신성한 텍스트’에 대한 이광수의 존경과 경의가 있었던 점이 들어간다.⁴⁵⁾

43) 번역문에 일본어원문을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에 조선어역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어와 조선어 간의 위계 관계(혹은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44) 이광수는 1939년 2월에 「折りにふれて歌へる」라는 제목 하에 창작 와카 9수를 『동양지광(東洋之光)』에 실었고, 1942년 1월에는 「元日」라는 타이틀 하에 창작 와카를 7수를 『신시대』에 발표했다. 또한 1941년 1월에는 박문서관(博文書館)에서 일본어로 쓴 『同胞に寄す』을 발간했는데, 여기에도 8수의 창작 와카를 게재했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折りにふれて歌へる」에 실린 이광수의 창작 와카만 인용한다.

(1) 天地のいづくはわか家ならざらむ仰ぐ御光果てしあらねば

(2) 好き人の文読む程に何時となく念仏申す身となりにけり

(3) 韓土の二千万の民草と君わか君と仰ぎまつらむ

(4) とこしへの濁りに喘ぐ黄河の流も澄みて君が代となる

(5) 常闇の我が魂の夜も明けぬらむかの雲の端に映ゆる曙

(6) 恩愛の羈絶ちてぞ恩愛のえにしものを救ひこそせめ

(7) われと云ふかたきを討ちて四十八年そのたゝかひは去年も今年も

(8) まごゝろのしめす真にひたすらにわれは生きなむその日その日を

(9) ひととせを又なすなくて過ごしけりあくる年はと又誓ひつゝ

45) 박상현(2014)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연구」 『일본학연구』 제41집,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 pp.191-211.

덧붙여 박상현은 위 논문에서 194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어보급률이 우리의 예상보다 낮았다는 점도 번역문에 조선어역과 함께 일본어원문을 제공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방금 인용한 박상현의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연구」는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어떻게 조선어로 옮겼는가를 최초로 논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그는 이광수가 『明治天皇御製謹譯』에서 선보인 ‘대역’이라는 번역 방식이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일본의 운문작품의 번역사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논하고 있지 않았다.

앞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된 일본의 운문작품은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시하는 방식과 함께, 거기에 일본어원문도 동시에 제공하는 곧 ‘일본어원문-조선어역’과 같은 대역 방식도 있었다. 특히 대역 방식은 1940년대에 들어 도입된 번역 방식이었다.

그러기에 여기서 상기하고 싶은 것은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후에 발표된 서두수와 김억 등이 시도한 일본운문작품의 조선어역에 보이는 번역 방식이다. 이것들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보았기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다시 인용한다.

* 서두수의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1941년 11월)에 보이는 번역 방식⁴⁶⁾

畏きや 命被り 明日ゆりや 葦が共寝む 妹無しにして(四三二一)

惶恐하고야 큰부르밧자와 세는날부턴 무속무처잡드니 지어밀쳐나고서

我が妻は いたく恋ひらし 飲む水に 影さへ見えて よに忘れず(四三二二)

나지어미야 알쓸헤그린양타 마시런샘에 그림자어른대여 니출곳모를레라

* 김억의 『만엽집초역』(1943년 7월~8월)에 보이는 번역 방식⁴⁷⁾

46) 박상현은 일련의 논문에서는 서두수가 왜 『防人歌(사끼모리노우다)』를 조선어로 번역했는지, 왜 출발언어중심주의로 옮겼는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언급했다. 그의 몇몇 논문 가운데 주요 논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박상현(2011)『서두수의 『만엽집(万葉集)』 번역에 관한 연구』『일본문화연구』제39집, 동아시아일본연구

_____(2012)『경성제대 ‘국문학(일본문학)’ 전공자 서두수 연구-문헌학적 고찰-』『일본문화연구』제42집, 동아시아일본학회

_____(2012)『경성제대 ‘국문과(일문과)’ 출신 서두수 연구-『만엽집(万葉集)』번역을 둘러싼 김억과의 비교를 통해-』『일본문화학보』제53집, 한국일본문화학회

47) 박상현은 몇몇 논문에서 김억이 왜 『만엽집초역』을 우리말로 옮겼는지, 왜 도착언어중심주의로 번역했는지 등에 대해 상세히 지적했다. 그의 일련의 글 가운데 주요 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박상현(2008)『『만엽집초역』의 텍스트 연구』『일어일문학연구』제67집2권, 한국일어일문학회

_____(2009)『식민주의와 번역』『일본연구』제26집, 중앙대학교 일본연구소

今更に何をか思はむうちなびき こゝろけ君によりにしものを

(今更 何乎可將念 打靡 情者君爾 緣爾之物乎)

무엇을 새삼스래 이생각 바꾸오리

이마음 그저님만을 의지의지시나니

吾背子は物なおもひことしあら ば火にも水にもわれなげなくに

(吾背子波 物莫念 事之有者 火爾毛水爾毛 吾莫七國)

님께서 걱정일랑 꿈에도 마실것이

만일에 일곳잇서란 물불인들 외다라

* 번역자 미상에 의한 「雨ニモ負ケズ」(1944년 8월)의 번역 방식

雨 ^{アメ} ニモマケズ	비한테도 안지고
風ニモマケズ	바람에도 안지고
雪ニモ夏ノ暑サニモマケヌ	눈한테도 여름더위에도 안지는
丈夫ナカラダヲモチ	튼튼한 몸을 가지고
欲ハナク	욕심은 없고
(中略)	(중략) ⁴⁸⁾

결국 이들 번역문에는 조선어역만이 아니라 일본어원문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런 번역 방식은 이미 이광수가 1941년 7월과 8월 그리고 9월에 걸쳐 발표했던 「明治天皇御製謹譯」에서 선도적으로 도입된 번역 방식이었다.⁴⁹⁾

_____ (2009) 「김억의 『만엽집초역』 연구」 『일본어문학』 제40집, 한국일본어문학회

48) 역자 미상, 앞의 논문, p.52.

49) 「明治天皇御製謹譯」에서 보이는 번역 방식은 우연히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선택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한 두 차례 인용했던 박상현의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연구」에 잘 나와 있다. 반복이 되지만, 요컨대 그에 의하면 이광수가 명치천황의 와카를 조선어로 옮기면서 일본어원문도 함께 제공하는 대역 방식을 채택해야만 했던 데에는 우리의 예상과 달리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의 낮은 일본어 보급률이 크게 관여했다고 한다. 따라서 일본어 보급을 높이는 수단으로 일본문학작품의 번역에서 조선어역과 함께 일본어원문도 제시하는 대역이라는 방식이 선택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처럼 1941년을 전후로 하여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어 보급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된 데에는 전장의 확대에 따라 일본인 병사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조선인 병사가 필요하게 됐다는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고 한다.

박상현, 앞의 논문, pp.2-17.

V. 맺음말

지금까지 국어국문학계와 일어일문학계에서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이루어진 일본문학작품의 조선어역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고, 그것과 관련된 개별적인 고찰은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냈다. 다만 선행연구는 식민지 조선에서 번역·소개된 각각의 일본문학작품을 번역사적으로 볼 때 그것들이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논하지 못했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로 옮겨진 일본문학작품을 전체적으로 조망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식민지 조선에서 조선어로 번역된 일본문학작품을 10년 단위로 살펴보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그것들이 1920년대와 1940년대에 집중적으로 번역되었다는 것과 함께 소설과 같은 산문작품보다 근대시나 와카와 같은 운문작품이 주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다음으로 이 시기에 번역된 운문작품들의 번역 방식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었다. 1920년대까지는 조선어로 옮길 때 번역문에 조선어역만 제시했었는데, 1940년대에 들어서는 조선어역뿐만 아니라 일본어원문도 함께 제공하는 ‘대역’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1940년부터 시작된 ‘일본어원문-조선어역’이라는 대역 방식을 선구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다름 아닌 춘원 이광수였고, 그는 명치천황의 와카를 번역했던 『明治天皇御製謹譯』에서 이와 같은 번역 방식을 최초로 시도했다.

본고의 목적은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이 갖고 있는 번역사적 위치를 고찰하는 데 있다. 그 결론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제국일본은 일제 말기인 1940년대에 들어 식민지 조선에 일본어를 보다 널리 보급함과 동시에 조선인의 황국신민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국일본의 요청에 서두수, 김억 등은 와카나 일본의 근대시를 조선어로 번역할 때, 번역문에 일본어원문과 함께 조선어역을 제공하는 대역 방식으로 실천했다. 물론 이때 일본어원문은 일본어 보급의 역할을, 조선어역은 황국신민화의 역할을 각각 수행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중층적인 역할을 하는 번역 방식을 구체적으로 처음 시도한 것,

곧 그 전범을 보여준 것이 다름 아닌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이었다.⁵⁰⁾ 이것이 바로 일본운문작품의 조선어역에 있어서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이 갖고 있는 번역사적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⁵¹⁾



50)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에 대한 선행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리고 기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이광수가 왜 『明治天皇御製謹譯』을 번역했나(번역의도 분석)와 함께 『明治天皇御製謹譯』에는 어떤 와카가 번역되었나(번역작품 분석)에 있었다.

51) 참고로 후타바 테시메(二葉亭四迷)의 『UKIGUMO(浮雲)』라는 작품은 일본문학사에서 언문 일체체로 쓰인 일본근대문학의 효시라고 위치 지워진다. 『浮雲』의 이와 같은 자리매김도 일본근대문학의 흐름을 역사적으로 조망해봤을 때 비로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구인모(2009) 『한국의 일본 상징주의 문학 번역과 그 수용-주요한과 황석우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45집, 국제어문학회, pp.107-139.
- 박경수 편(1987) 『안서김억전집』(2-2) 한국문화사, p.463.
- 박광현(2009) 『‘국문학’과 조선문학이라는 제도의 사이에서-‘국문학자’로서 서두수의 학문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제54집, 한민족어문학회, pp.367-368.
- 박상현(2009) 『김억의 『선역애국백인일수』 연구』 『통변역교육연구』 제7권2호, 한국통변역교육학회, pp.121-140.
- _____ (2013) 『서두수의 학문적 정체성 연구』 『일본학연구』 제38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182-183.
- _____ (2014) 『춘원 이광수의 『明治天皇御製謹譯』 연구』 『일본학연구』 제41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pp.191-211.
- 역자 미상(1944) 『國語講座』 『조광』, 조광사, p.52.
- 별꽃(1919) 『日本近代詩抄』(1) 『창조』 창간호, 창조사, pp.76-80.
- 별꽃(1919) 『日本近代詩抄』(2) 『창조』 제2호, 창조사, pp.43-50.
- 쓰지 유미 저, 이희재 역(2008) 『번역사 오디세이』 끝레마, p.16
- 서은주(2008) 『제도로서의 한국 근대문학과 탈식민성』 소명출판, p.291.
- 이경훈 편역(1995) 『춘원 이광수 친일문학전집 2』 평민사, p.44.
- _____ (1998) 『이광수의 친일문학연구』 태학사, p.194.
- 임선묵(1981) 『선역애국백인일수고-안서문학일반-』 『국문학논집』, 단국대학교국어국문학과, pp.165.
- 임종국(1983) 『친일문학론』 민족문제연구소(초판 1966), pp.445-446.
- 최현식(2008) 『이광수와 ‘국민시’』 『상허학보』, 상허학회, p.324.
- 한국문화간행사 편 『한국잡지총서』2 한국문화간행사, pp.86-95.
- 明治会(1941) 『明治天皇御集』 新潮社, pp.1-258.

- ❖ 투고일 : 2013.12.30
- ❖ 심사완료일 : 2014.02.09
- ❖ 게재확정일 : 2014.02.10

Abstract

A Study of Value of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in Translation History

: Focusing on Chunwon Lee Gwang-soo's translation techniques

Park, Sang-hyun

This study has investigated the Japanese literary works translated in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by the decade and discover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They were mostly translated during the 1920-1940s. In terms of genre, poetic forms such as waka and modern-style poetry instead of prose (ex: novel, etc.) were the mainstream. In terms of translation technique, very interesting facts have been discovered in these poems. Until the 1920s, when Japanese literary works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 Korean version was only published. Entering the 1940s, however, both original and translated texts were released. It was Chunwon Lee Gwang-soo who first introduced paginal translation in the form of 'the original-translated version' since the 1940s. He used this technique in translating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Through this review, this study has been able to find out the value of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lation history. Entering the 1940s, Japan started to accelerate the spread of Japanese language across Joseon and focused on hwangguk simminhwa (conversion of Joseon people into the citizens of the Japanese empire). In response to Japan's request, Seo Du-soo and Kim Eok chose paginal translation in translating Japanese poetic genres such as waka into Korean. Under the form of paginal translation, the original text was aimed to spread Japanese language, and the translated version played a role of hwangguk simminhwa. After all, it was Lee Gwang-soo's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which specifically presented a typical pattern of the paginal translation, which refers to the value of '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in translation history.

Key Words : 明治天皇(Meiji Tenno), 明治天皇御製(the Poetical Works of Majesty Meiji Tenno), 李光洙(Lee, Gwang-soo), 和歌(Waka), 対訳(Paginal Translation), 皇国臣民化(Hwangguk Sinminhwa)

